

# 外來技術 選好性과 環境保全



윤 명 조  
〈(사)현대환경관리소장〉

요즘 外債에 대한 관심이 모든 국민의 화제가 되고 있으며 공동운명체라는 면에서 걱정스럽게 느꼈기에, 생긴 자연발생적인 현상으로 보아 “늦게나마 당연히 와야 할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1984년 12월말 현재 미화로 432 억불이라는 엄청난 외채를 걸머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외채는 국민 1인당 918,000 원이라는 산술적인 계산으로 추정된다. 즉 1가구 5인 가족이라면 가가호호마다 약 459만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외국에 지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 이 빚의 이자는 나날이 늘어나기 마련이고 이 빚은 국제사회 신용도를 고려할때 필연코 갚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적인 금액이다.

그러면 이러한 외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상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부분이 차지 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간산업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주요 연구기관의 육성등의 건설과 투자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이러한 외채에 대한 상환계획은 정책입안자들의 면밀한 계획에 의해 이뤄졌으리라 믿지만 문의한의 입장에서 볼때 432억불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외채는 특정 계층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가. 모든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또한 문제 된다고 볼 수 있다. 외제라면 가격과 성능을 검토한 후 물자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외제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선호도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외제의 무조건적인 구매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상품만 붙어 있으면 그 제품이 국내기술진에 의해 만들어졌건 만들어지지 않았건 관계없이 2~3배 비싼 가격으로도 구입한다는, 외국상품에 대한 동경에 가까울 정도

의 선호도가 문제되는 것이다. 근래 대중매체를 통한 내용을 보면 외국상품에 비해 국산품이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고 가격면에서도 저렴하다는 보도를 보더라도 외제에 대한 선호도라고 하기 보다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정도로 뿌리가 깊숙히 내려져 있는 우리들 의식구조의 추한 모습을 볼때 모두가 반성해야할 시점에 온것을 알 수 있다.

한때 우리 국민들은 국산을 애용하는 것이 애국심 발로의 한 수단으로 여겼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국산을 애용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국민운동에 의해 특정 업체들은 호황을 누렸을 것이라는 추측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희생에 가까울 정도의 국산 애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보답은 어땠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였으니 그 보답을 다 했다는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국민 즉 애국심 발로에 의해 구매한 소비자에 감사하는 기업정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겠다는 결심 또한 기업이익의 일부뿐이나마 불우 이웃들이라는 형태(빈곤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공, 영세민을 위한 자선 등등)로 사회로의 재환원시킨다는 자세가 순리일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모두가 그러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호황을 이루면 많은 기업들은 제품의 질이 전보다 못해졌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기대하였다가 실망했을때 받게되는 충격은 크며 반대 작용은 기대했던 것에 비례하여 역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들 한다. 즉 불신이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외제를 선호한다는 사실도 중요시해야 한다.

따라서 외제에 대한 선호도는 어떤 특정계층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 기업, 소비자 모든 국민이 시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자가 관련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60년대의 국산품애용을 했던 시기와 오늘날 국제자유무역이라는 정책하에서의 국산품애용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국내, 국외사정을 감안해 볼때 환

경보전 분야에서의 외래기술 선호성이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외채 가중요인은 매우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공해방지를 위한 외국기술도입과 특정지역의 조사연구를 위한 용역차관등을 들 수 있다.

농업국가에서 탈피하여 경제발전을 위해 공업을 육성해야겠다는 1960년대에 앞으로 예측되는 환경오염을 감안하여 1964년에 공해방지법을 선포하므로써 환경에 대한 결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상징적인 법에 지나지 않았으나 1969년 공해배출시설의 사전허가제를 도입하므로써 공해배출시설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정수업계에서는 산업폐수처리를, 그리고 제관업계에서는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검댕을 제거키 위한 제진장치 시설에 대한 기술을 축적해 왔다.

초기의 공해방지 산업의 기술은 빈약하였다. 그러나 공해 방지법의 폐기와 환경보전법의 선포, 환경청의 신설등 환경보전을 위한 체제와 단속등의 강화 그리고 공해방지산업의 기술축적등 10여년의 노력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래 우리나라의 공해방지기술은 크게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현시점에서 공해배출업소에서는 우리나라 공해방지기술을 미더워 하지 않고 외국 공해방지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외국기술의 선호성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현상으로도 입증된다. 즉, 첫째 우리나라 공해방지업소는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으나 기술협력에 크게 의존치 않고 형식상의 유대를 갖고 있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원인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기업체에서 외국과 기술제휴를 하고있는 경우 신임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외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 조사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 설계의 승패는 사전 조사와 측정의 정확도에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 측정비는 무료로 하여 줄것을 요구한다. 셋째 외국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의 사양서를 받아 들이지만 국내업체인 경우 심한 경쟁입찰을 통해 적정 성능의 시설과 적정금액을 택하

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렴한 금액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외제 선호도와 외국의 기술의 지나친 신뢰, 그리고 외국기술의 무조건적인 제휴로 인한 Know-How비 지출등은 외채를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편, 한강유역 및 낙동강유역 조사를 위해 UNDP/FAO 및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시행된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환경보전을 위해 외국차관을 도입, 외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들은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보고 정책입안을 해야한다 함은 환경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숙원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외채를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된다. 외국 차관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연구진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연구진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기 마련이며 많은 사업 비용은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왜 외국차관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여 본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금 선호도와 경제수준에 비해 근검 절약하는 생활습성이 부족하며 저축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우리는 국제시장의 경쟁국인 대만이나 일본에서 저축의 생활화를 배워야 될 것 같다. 지난해 우리의 국민저축율의 26.5%중 가계 저축율은 불과 8.1%인데 비해 대만의 1983년도 가계 저축율은 12.7%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몇 억원씩 현찰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한 물질지향한 사람들, 정신차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하건 내가 어떠한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본다. 우리나라 국민 1 사람이 1,000 원씩 저축한다 해도 400억이 된다. 즉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격언, 그대로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때 외채를 줄이는 길은, 불요불급한 외채도입을 지양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업체는 국산, 국내기술을 믿고 질과 가격을 따져서 활용하는 올바른 기업정신의 발로와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액체연료절감기 필요하며 국민들은 외제선호도의 지양과 저축의식의 토착화등으로 범국민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

❀ 내가 가꾼 환경속에  
자손만대 웃고산다. ❀